

제40절의 숨겨진 역사 - 숫자 9

권능과 영광과 고난

Jeff Pippenger

2026-05-06

베드로는 바니움(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데, 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와 함께 따로 갔던 세 번의 일들 가운데 중간 시점보다 불과 몇새 혹은 팔일 앞선 때이다. 첫 번째는 아이로의 열두 살 난 딸의 부활에서 나타난 그분의 능력의 시위였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분의 영광의 시위였으며, 세 번째는 겿세마네, 곧 그분의 고난의 시위였다. 11장에서 바니움에 있는 베드로는 16절의 십자가 바로 앞에 정렬되어 있다. 산은 세 제자가 단독으로 참여한 이 세 번의 여정 가운데 중간 지점이었다. 산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세 번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세례 때와 산에서, 그리고 그 후 십자가 직전에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 세 가지 특정 사건의 중간점에 있다. 그는 또한 마태복음 11장부터 22장까지의 중간점이기도 하다.

그 엉덩나귀와 그 새끼 곧 주를 위한 것이다.

산은 승리의 입성에 앞서 있었는데, 그 입성은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나르기 위하여 나귀가 풀려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옛 터인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의 나귀가 예물을 위한 나무를 실어 나른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레위기 23장의 계열에서 나팔절은 나귀가 풀려나는 것을 표시하므로, 변화산의 체험은 승리의 입성에 앞서 있었고, 이로써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와 정렬된 레위기 23장의 삼십 일의 역사 속에 놓이게 된다. 그 삼십 일 동안 성전(가운데 시험)은 여든 명의 용맹한 제사장들 가운데 들 후보자들에게 임하게 된다. 거룩한 곳에서의 웃시야 왕의 반역에 대한 증언에서 그 여든 제사장들은 용맹한 자들로 확인되며, 따라서 참여하지 않은 제사장들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고, 그와 함께 여호와와 제사장 팔십 명이 있었으니, 다 용감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웃시야 왕을 막아서며 그에게 말하였다.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분향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이니이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왕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리이다." 역대하 26:17, 18.

용감한 제사장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4.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성소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며, 거기서 죄를 도말하시는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을 숙고하게 하신다. 베드로는 2023년 12월 31일에 부활한 뒤, 예언의 외적

이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 로마의 역할에 관한 기초 시험에 직면하였다. 그 후 성전에 관한 두 번째 시험이 베드로에게 이르렀고, 바로 그곳에서 내부 선의 이상이 다니엘서 10장의 looking glass vision으로 표상된다.

베드로는 2020년 7월 18일에 그의 주를 부인하였고, 그것도 세 번이나 그렇게 하였다.

“베드로는 세 번 공공연히 자기 주를 부인하였고, 예수께서도 세 번 그에게서 그의 사랑과 충성의 확증을 이끌어 내시며, 그 날카로운 질문을 상처 입은 그의 마음에 가시 달린 화살처럼 깊이 박히도록 하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드러내셨고, 한때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가 얼마나 철저히 낮아졌는지를 보여 주셨다.” *The Desire of Ages*, 812.

베드로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대표하였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되는 각 부류를 위하여 사도 베드로의 역사 속에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 초기의 제자 생활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였다. 바리새인처럼, 그의 자기 평가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미리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마가복음 14:27, 29.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하였다. 자기 확신이 그를 그릇 인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시험을 능히 견디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불과 몇 시간 후 시험이 닥쳐왔고,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자기 주를 부인하였다.” 『실물교훈』, 152.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나뉘는 두 큰 부류를 대표한다. 그들의 처음 두 대표자는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두 자녀에게서 발견된다.” *Christ’s Object Lessons*, 152.

아벨과 세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상징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13, 14.

1888년의 기별에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오는 일이 수반되었다.

“주께서는 그분의 크신 자비 가운데서 와그너와 존스 장로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지극히 귀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두드러지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으며,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도록 백성을 초청하였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 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눈이 그분의 신적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향하여지게 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졌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시며,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그분 자신의 의라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의 성령이 크게 부어짐으로 수반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Testimonies to Ministers, 91.

라오디게아 기별

“A. T. Jones와 E. J. Waggoner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광선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The 1888 Materials, 1053.

늦은 비의 기별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리게 되어 있다. 힘센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4월 21일.

뉴욕시와 9/11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결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층층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일어나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에 얼마나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장차 땅에 이를 일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뉴욕에 닥쳐올 일에 관해서는 특별히 받은 빛이 없고, 다만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돌이키심과 뒤엎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임을 내가 알고 있을 뿐이다. 내게 주어진 빛에 따르면, 세상에는 멸망이 있다. 주께서 한 마디 말씀하시고, 그분의 강한 능력이 한 번 닿기만 하여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July 5, 1906.

세리 베드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한 영혼을 대표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9/11에 도착한 라오디게아의 기별이다. 그때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고 요한계시록 18:1-3이 성취되었다. 그 후 늦은 비가 뿌리기 시작하였고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일이 시작되었다.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의 끝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으로 내려와 세 가지 시험으로 베드로를 부활시켰다. 첫 번째 시험은 2023년 12월 31일에 시작되었으며, 다니엘 11장 14절에서 그 이상을 세우는 세력이 로마라는 기초 진리를 나타냈다. 그 이상은 하존 이상이며, 이는 외적인 예언의 노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솔로몬은 그것이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고 말한다.

[chazon] 묵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베드로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의 시험으로서, 이는 화잇 자매가 그녀의 최초의 이상들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거기서 그녀는

일곱째 날 안식일 계명이 다른 아홉 계명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심판의 개시 시점에서 그 교리는, 심판의 종결 동안인 마지막 날들에 다른 예언적 교리들 위에서 빛나는 성육신의 교리를 나타낸다. 죄를 알지 못하셨으나 타락한 죄 있는 육체를 친히 취하신 신적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다양한 예증들로 제시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곱 때의 교리이다. 일곱 때의 교리는 밀러의 예언적 발견들의 알파였으며, 또한 1856년에 밀러파 빌라델비아 재림주의가 7년에 걸쳐 반역하고 1863년에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되었던 밀러파 역사의 오메가 교리를 나타내는 교리였다.

에스겔 37장의 두 막대기는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에 대한 두 개의 2,520년 심판을 나타낸다. 북방 왕국은 인간의 육체를 나타내고, 남방 왕국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도록 설계된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성육신의 교리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표상이다. 일곱 때는 밀러 운동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였으며, 그것이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또한 1844년의 알파 안식일 교리와 관련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역사의 오메가이기도 하다. 하나는 제칠일 안식일의 표징이요, 다른 하나는 제칠년 안식일의 표징이다.

베드로의 이름은 파니움에서 바뀌는데, 이는 선택된 백성과 맺은 첫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표상의 두 번째 단계였으며,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단계에서 선택된 백성과 맺은 마지막 언약의 대표자가 된다. 그것은 열한 장에서 스물두 장에 이르는 장들의 계보에서 두 번째 단계이며,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서 떠나 예수와 함께 갔던 세 번 가운데 두 번째요,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 번 가운데 두 번째이다. 네로의 계보는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의 중간점에서 끝나는데, 이는 그것이 기원전 457년과 1776년에 시작된 다른 두 개의 250년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457년은 기원전 207년에 끝났고, 1776년은 2026년에 끝난다. 베드로는 기원전 207년, 2026년, 313년, 그리고 나귀를 푸는 일의 세 번째이자 시금석이 되는 시험에 앞서는 성전 시험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나팔절로 표상된다.

베드로의 시험은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의 일은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관한 기별을 바로잡고, 이어서 그 바로잡힌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관한 기별은 오순절의 기별이며, 그 기별은 처음에는 다락방에서, 그 후에는 성전에서 제시되었다. 그는 내슈빌의 불덩이들과 라피아 전쟁의 성취를 밝히는 자신의 기별을, 바니움 전쟁과 연관하여 제시하는데, 그 바니움 전쟁은 16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악티움 전쟁이 된다. 16절의 일요일 법령은 또한 41절과 22절의 일요일 법령이기도 하다. 이 세 절은 또한 교황권이 538년에 지배권을 장악하고 제3차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킨 31절과도 일치한다. 31절로 이끄는 절들은 538년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진 이정표들을 밝혀 주며,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앞서는 역사를 예표한다.

깃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므로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향하여 분노하라. 그가 이같이 행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서로 결탁하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다니엘 11:30, 31.

“깃딤의 배들”은 반달족을 표상하였으며, 그들은 또한 요한계시록 8장의 둘째 나팔로도 표상된다. 로마의 점진적인 몰락은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왕국을 동과 서로 분할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그는 그 후 그것을 자신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악티움 전투 이후로 무적이었던 로마 제국은 그때 둘로 나뉘고, 이어 셋으로 나뉘었으며, 그 다음 요한계시록 8장의 처음 네 나팔은 476년에 서방 로마를 종결로 이끈 적들의 맹공을 표상하였다.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로마는 다섯째 나팔의 끝과 여섯째 나팔의 시작까지, 곧 첫째 화와 둘째 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첫째 화의 150년이라는 시간 예언은 둘째 화의 시간 예언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짜에 끝났다. 그 날짜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함락된 때였다.

바벨론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혹은 키루스가 먼저 강의 물길을 돌려야 했고 그것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렸다고 당신은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바벨론의 몰락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다. 반면에 로마의 몰락은 112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기간에는 제국 로마의 점진적인 멸망을 묘사하는 특정한 예언적 이정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국적이고 로마는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으로서 538년에 교황권을 보좌 위에 앉히는 일에 있어서 미국의 예표가 된다. 교황권은 다니엘 11장 16절의 일요일 법령 때 보좌 위에 앉혀진다. 미국의 활동을 예표하는 이정표들은 이교 로마의 점진적인 멸망의 이정표들 속에 나타나 있다.

깃딤의 배들은 로마에게 재정적 재앙을 상징하였으니, 반달족의 해군이 지중해의 해상 교통로에 큰 파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말일에 이슬람은 땅의 왕들에게 재정적 재앙으로 묘사된다. 반달족과 그들의 배들은 둘째 나팔의 세력이었으며, 세 화는 이슬람적 나팔 세력들이다. 첫째는 아라비아였고, 둘째는 터키이며, 셋째는 전 세계적이다.

배들은 경제적 권세의 상징이며, 성경에서 깃딤의 배들은 경제적 권세를 나타내는 최상의 상징들이다. 그 배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노한 동풍에 의해 침몰되는데, 성경에서 이슬람은 동방의 자손들이다. 이슬람이 예언적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주목될 때, 그것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 이슬람은 발람과 함께 암나귀로 표상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처음 소개될 때 “들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이다. 이스마엘은 예언적 차원에서 이슬람의 조상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열두 지파가 성경에서 동방의 자손들로 알려지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 날들에 거짓 선지자로서의 미국을 상징하는 발람은 자기 나귀를 세 번 치는데, 이는 이슬람의 세 번의 타격을 나타낸다. 9.11은 그 타격들 가운데 첫 번째였으며, 투쟁의 거친 동풍 가운데 동방에서 올라오는 인치는 천사의 도래를 표하였다. 이슬람의 두 번째 타격은 이중적인데, 이는 두 번째 단계가 배가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7일 이슬람은 문자적 이스라엘을 뜻밖에 쳤고, 테네시 주 내슈빌이 이슬람에 의해 뜻밖에 타격을 받을 때 영적 이스라엘도 타격을 받은 것이 될 것이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이정표는 두 포도원 사이에 있었고, 만군의 여호와와 두 포도원은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미국이었다. 발람의 세 번째 이정표는 나귀가 말하였을 때였으며, 9.11에서 시작된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치는 때의 끝을 표시하는 말함의 상징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일요일 법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은 그 일요일 법이며, 거기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고, 거기서 미국과 나귀와 스가랴가 말한다.

세레 요한의 아버지는 다윗이 성전에서 섬기도록 세운 스물넷의 제사장 반열 가운데 여덟째 반열에 속해 있었다. 제사장 스가라는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불신으로 인하여 병어리가 되었는데, 그는 숫자 팔의 상징, 곧 제사장직의 상징이다. 일요일 법 때에, 세레 요한으로 표상된 마지막 세대의 제사장들은 그의 아버지 스가라로 표상된 바와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엘리야로 밝히셨으며, 엘리야의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스가라와 요한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상된다. 요한은 예레미야로 예표되었는데, 예레미야는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바 있다.

예레미야는 2020년 7월 18일의 첫 번째 실망을 애통해하고 있었으며, 그가 돌아오면 일요일 법령 때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하박국의 예언적 기별을 제시할 때였다. 그 기별은 더디는 듯하였으나 마침내 “말할” 것이었다. 예레미야, 그러므로 요한,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슬람의 나귀가 말하고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그 시점에 하박국의 기별을 말해야 할 것이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 곧 바니움은, 십자가 곧 일요일 법으로 이르게 하는 개선 입성에 뒤따를 “산”의 이정표에 선행하는 한 기간 속에 있다. 그 기간은 바니움 전투로 표상되며, 이 전투는 교황과 그의 대리 권세인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바니움은 세 차례의 대리전 가운데 세 번째이며, 그 첫 번째는 1989년 베를린 장벽에서 종결되었고, 마지막 곧 세 번째 대리전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이루는 “벽”이 허물어지는 데서 종결된다. 1989년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끝에서 시작된 “냉전”이라 불리는 대리전의 절정을 이루었으며, 바니움은 악티움 전투로 표상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끝나는 하나의 냉전을 나타낸다. 세 차례의 대리전에 관한 첫째와 셋째 이정표의 중간에는, 11절과 12절의 라피아 전투로 표상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문자적 전쟁이 있다.

파니움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끝에서 시작되어 1989년 끝의 때에 종결된 냉전으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냉전이다. 10절과 1989년으로 표상되는 이정표들, 11절과 12절 및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및 MAGA주의와 세계주의 사이의 현재의 냉전에는, 교황권과 미국 사이의 동맹을 표지한 세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사탄적 파티마 예언들의 관점에서 보수적인 교황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비밀 동맹 관계에 있었으며, 이는 10절의 예언적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오바마의 대통령 재임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라피아 전투의 역사와 일치한다. 그의 재임 기간에는 상징적인 두 교황이 있었는데, 이는 두 번째 이정표가 중복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세 번째 이정표에서 그 교황은 미국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다. 우리는 처음에 교황 레오가 요한 바오로 2세로 예표된 바와 같은 보수적인 교황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삼중 적용의 예언적 적용 아래에서는 세 번째 이정표가 앞서 두 성취의 특징들을 지니므로, 레오는 보수적인 요한 바오로 2세이며, 그는 오바마의 임기 동안 각성주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사임한 전 종교재판소 수장 베네딕토 16세이다.

첫 번째 대리전은 한 절로, 두 번째는 두 절로, 세 번째는 세 절로 표상된다. 1989년에 끝난 냉전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끝에서 시작되었으며, 악티움 전투로 표상되는 제3차

세계 대전은 파니움 전투로 표상되는 냉전의 끝에서 시작된다. 세 차례의 세계 대전은 세 차례의 대리전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삼중 적용과 관련된 원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은 1945년 루스벨트 이후 여덟 번째 대통령인 레이건과 함께 끝난 냉전의 시작을 이루었다. 끝의 때인 1989년에 레이건은 트럼프로 이어지는 여덟 명의 대통령의 연속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일곱 중의 하나”이다. 트럼프의 냉전은 그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세계주의자들을 격동시킨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다니엘 11장 2절의 성취이다. 그 냉전은 일요일 법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곧 악티움 전투이며, 로마가 최고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전에 맞이하는 세 번째 장애물이다.

루스벨트로부터 레이건까지는 여덟 명의 대통령이었고, 레이건으로부터 트럼프까지도 여덟 명의 대통령이 시작되었다. 루스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을 표지하는데, 그는 1945년 4월 12일에 사망하였고, 그 후 트루먼이 대통령이었을 때 유럽 전쟁은 5월 8일에 끝났으며 태평양 전쟁은 9월 2일에 끝났다. 유럽 전쟁은 대체로 육상 전투였고 태평양 전쟁은 해상 전투였는데, 이는 마치 파니움이 육상 전투를, 악티움이 해상 전투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처음 것이 마지막 것을 예시하며, 여덟 대통령의 연속은 다니엘 11장 2절과 3절의 증언 위에, 또한 여덟째가 일곱 가운데 속한다는 수수께끼 위에 확립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역사의 시작에 있었던 처음 두 차례의 대륙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일곱 번 있었다. 그 역사에서 조지 워싱턴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첫 공식 대통령으로서, 제2차 대륙회의에서의 워싱턴의 임명은 맨 처음에 워싱턴이 일곱 대통령 가운데 여덟째인 것을 상징한다.

첫째 대통령은 처음 일곱 대통령 가운데 여덟째였고, 마지막 대통령은 그 일곱에게 속한 여덟째이다. 제사장 스가라는 요한의 출생 때, 나귀가 말할 때, 그리고 땅의 짐승이 말할 때 말한다. 또한 바로 이곳에서 하박국의 이상도 말한다. 일요일 법령 때의 십사만 사천의 기치를 예표하는 요한의 출생은 제사장 스가라의 마지막 세대이다. 스가라는 제사장들의 스물넷 반열 가운데 여덟째 반열에 속해 있었다. 일요일 법령 때 스가라(제사장들)가 말하는데, 그때 이슬람(나귀)이 말하고 미국은 용처럼 말한다. 그 이정표에서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을 입고, 그는 그 일곱에게 속한 여덟째가 된다. 트럼프 또한 그 일곱에게 속한 여덟째이며, 일요일 법령 때 완성되는 짐승의 우상을 형성하는 자도 바로 그이다. 그러면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가운데 그 기별을 말한다. 그 제사장직은 그 일곱에게 속한 여덟째 교회이다.

루스벨트는 1989년의 끝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끄는 여덟 명의 대통령의 시작점이며, 그는 1989년에 종결되는 냉전으로 넘어가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부터의 전환을 표지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루스벨트의 뒤를 이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을 이루었던 육지와 바다의 전투들이 끝났을 때 통치하였다. 대통령으로서 트루먼은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출범하였을 때 통치하였다. 루스벨트와 트루먼의 관계는 1945년이라는 해에 의해 확립된다. 두 사람은 모두 그 해의 대통령들이었고, 또한 그 해에 제2차 세계 대전이었던 이중의 전쟁이 끝났으며, 국제연합이 창설되었고, 냉전이 시작되었다.

1989년에도 1945년과 같이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으니,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1세였다. 레이건은 냉전을 종식시켰고, 조지 부시 1세는 1990년 10월 1일 제45차 UN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세계주의자임을 천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신세계 질서”를 건설하는 일에 대해 말했다. 그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어두운 기계들을 그것들이 속한 암흑시대에 뒤로 남겨 두고, 신세계 질서를 향한 역사적 운동을 완성하며 긴 평화의 시대를 향해 전진할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부시는 그 개념을 냉전 이후의 협력, 걸프 위기(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유엔의 강화, 그리고 법치에 기초한 국가들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와 연결시켰다. 부시는 그보다 몇 주 앞선 1990년 9월 11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신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처음 대중화하였다.

부시가 자신의 유엔 연설을 최근의 냉전 종식을 “암흑시대”라는 용어로 규정한 맥락 속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암흑시대는 마지막 때인 1798년에 끝났으며, 부시는 1989년의 마지막 때에 있었다. 그가 “신세계 질서”라는 구절을 처음 만들어 낸 시점에는 이슬람이 열국을 분노하게 하고 있었고, 그 연설은 9/11에 행해졌다는 점에 주목하라. 루스벨트에서 카터까지는 여덟 명의 대통령이었고, 레이건에서 트럼프까지도 여덟 명의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마지막 대통령이며, 그는 첫 번째 대통령에 의해 예표되었는데, 그 첫 번째 대통령은 처음 일곱 대통령 가운데 여덟째였다.

1798년에 이르는 마지막 때는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를 가리키며, 교황권은 암흑시대 동안 유럽의 왕들을 다스리던 세력이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관계는 한 짐승 위에 올라타고 그 짐승을 지배하는 음녀로 묘사된다. 1798년에 유럽 왕들의 지지가 제거되었고, 그 짐승은 죽었다. 1799년에 교황은 유배지에서 죽었다. 1798년과 1799년은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마지막 때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표시되고, 이어 여섯 달 후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표시되는 것과 같다. 1990년에 있었던 부시의 발언은 마지막 때를 표징하는 두 대통령 가운데 둘째로서의 부시를 나타내며, 용의 세력인 세계주의를 향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부시의 상징은 미국이 용처럼 말함으로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종말을 맞이할 때, 곧 일요일 법령을 향한 한 걸음을 표시한다. 일요일 법령 때에 미국은 국제연합의 음성이 된다. 바로 그러한 문맥에서 이슬람은 열국을 분노하게 하고, 9·11이 표시된다. 1990년 9월 11일, 첫 번째 부시가 의회에서 자신의 세계주의 의제를 말했을 때, 그는 2001년 9·11에 이슬람이 다시 열국을 분노하게 할 때를 예표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대통령은 마지막 부시가 될 것이었다.

여덟 명의 대통령들 중 첫 번째인 루스벨트는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표시하였고, 그 뒤를 이은 다음 대통령은 국제연합의 출범을 가져왔다. 여덟 명의 대통령들 중 첫 번째인 레이건은 1989년에 냉전의 종식을 표시하였고, 그 뒤를 이은 다음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촉진하였다. 여덟 명의 대통령들 중 마지막 대통령은, 그가 2015년에 출마 의사를 발표했을 때 시작된 냉전을 끝내고,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을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의 머리(곧 국제연합)로 전환시킬 것이며, 그런 다음 일요일 법 때에 그 왕국을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상전과 해전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대통령도 차가운 전쟁을 겪게 될 것인데, 이는 악티움의 해전으로 이어지는 파니움의 지상전으로 표상된다. 일요일 법에서, 2015년에 트럼프가 세계주의자들을 자극함으로 시작된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지상전과 해전으로 표상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환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다음 단계가 국제연합의 세계주의였던 것과 같이, 레이건과 부시가 있던 냉전의 끝에서도 그러하였다. 먼저 미국은 일요일 법에서 끝나고, 그다음 부시의 "신세계 질서"가 일곱째 왕국을 도입하며, 이는 즉시 그들의 권세를 여덟째 왕국에게 주기로 동의한다.

첫 번째 부시와 마지막 부시는, 전자가 9/11 당시 의회에서 "신세계 질서"를 선언한 것과 후자가 2001년 애국법을 제정한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이정표는 모두 이슬람이 민족들을 분노하게 하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다루겠다.